

# ‘단군신화’의 한국어 교재 수용 양상 고찰 및 수록 기준 모색

원전 수용방식을 중심으로

이성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고전문학 전공  
elpinew2@hanmail.net

- I. 머리말
- II. 한국어 교육에서의 ‘단군신화’
- III. 한국어 교재에서의 ‘단군신화’
- IV. 원전의 교재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단군신화’ 수록의 기준 모색
- V. 맺음말

## I. 머리말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목표 언어의 습득뿐만 아니라,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정서적·지적 능력 신장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sup>1)</sup>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자료이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자의 요구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의 비중 있는 자료이다. 문학적 언어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쓰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으며, 문학의 다층적인 성격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함축하여 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반영하므로 목표어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sup>2)</sup>

특별히 한국 고전문학 작품은 한국인의 보편적 민족적 정서를 내포함과 동시에 한국의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유용한 한국어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sup>3)</sup> 한국 고전문학 작품은 전통적 가치관, 삶의 방식, 정신, 민속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문화 교육의 내용인 일상문화, 생활문화, 성취문화 등의 내용과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한국적인 삶의 이해와

---

1)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의의 및 목표에 대해서는 기왕의 훌륭한 성과들을 참고할 수 있다. 길리언 라자르(Gillian Lazar)는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을 활용하는 의의를 ① 동기 유발 자료(Motivating Material) ②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접근(Access to Cultural Background) ③ 언어 습득의 촉진(Encouraging Language Acquisition) ④ 학습자의 언어적 자각의 확대(Expanding Students' Language Awareness) ⑤ 해석 능력의 신장(Developing Students' Interpretative Abilities) ⑥ 전인 교육(Educating The Whole Person)으로 정리했다. Gillian Lazar, "Why use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Teacher Training and Development, 1993), pp. 17-20; 또한 콜리와 슬레이터(Joanne Collie & Stephen Slater)는 문학 작품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로 ① 가치 있는 실제적(authentic) 자료 ② 문화적 풍부함 ③ 언어적 풍부함 ④ 인간적 참여 등을 들었다. Joanne Collie & Stephen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3-6.

2)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 기초 단계의 문학 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16(이화어문학회, 1998), 213-234쪽 참고.

3) 이성희는 설화가 구전되면서 민중의 사상, 감정, 풍습, 세계관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문화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설화를 통하여 한국인의 심성 이해, 역사·문화적 어휘 이해, 관습, 미덕, 예의범절에 대한 이해, 속담·수수께끼 등으로의 확장, 설화의 흥미요소를 통한 학습 의욕 극대화, 효율적으로 한국 문화 알리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1999), 261-265쪽.

표본이 된다.<sup>4)</sup>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수의 타당성 입증 및 교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논의를 통해 문학 교육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이다. 그간 연구들은 문학 텍스트 선정 문제, 교수 모형, 장르별 연구, 수업 관련 연구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장 기반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의 실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sup>5)</sup> 그간의 문학 교수 연구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문학 작품을 한국어 교재에 제시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교육 자료로서 문학 텍스트 연구는 선정만이 아니라, “자료의 재구성, 수업과 연계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르고 있다. 즉, 이런 목록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습자 및 교수 현장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적극적인 재구성, 문학 작품의 발췌 및 수정, 요약 등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 현장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 재구성의 기준과 근거 등 텍스트 재구성은 교수 현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연구가 필요하다.<sup>6)</sup>

문학 작품 교수의 타당성이 인정받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문학 작품을 수록하되 어떤 방식으로 교재에 수록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이다. 그간 문학 작품 교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동안, 많은 한국어 교재에 문학 작품이 수록되었고, 일정한 기준이 없었기에 교재 편찬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는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이 제시되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데 적절한 규정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지는 목적은 매우 지당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는 문학 작품의 제시는 자못 한국 문학

4)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학교육 연구」, 『국제 지역 연구』 제11권 제4호(한국 외국어대 외국학 종합 연구센터, 2008), 149쪽.

5) 황인교, 「문학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2005), 287-300쪽.

6) 황인교, 위의 논문, 287-288쪽.

작품에 대하여 학습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지속될 한국 문학 작품의 수록 방향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고민해 보고 모색해 보는 일이야말로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영역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고전 문학 작품의 원전 수용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 교재에서 ‘단군신화’를 제시할 때의 재구성 및 요약, 수정 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준을 모색해볼 것이다. 따라서 먼저, 각 교재가 수록하고 있는 ‘단군신화’의 원전을 찾아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 요약, 수정하여 신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개 및 첨가의 양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수록할 때 점검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 II. 한국어 교육에서의 ‘단군신화’

### 1. 한국어 교육에서의 ‘단군신화’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단군신화’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민정은 설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단군신화’와 ‘나무꾼과 선녀’를 다루었다. 단군신화를 통하여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천신숭배 사상, 인간 긍정 사상, 숫자 3의 길수 인식, 조화와 생성 밝음 사상 등의 한국 문화의 원형을 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김민희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다루면서 천신 숭배사상, 천부지모 사상 등을 ‘단군신화’에 드러난 종교와 사상으로 지목했고, ‘단군신화’를 통한 실제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sup>8)</sup>

또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양지선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지선은 각 교재의 신화 수록 현황과 어휘를 점검한 뒤,

7)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국제 지역 연구』 제9권 제4호(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6), 101-125쪽.

8) 김민희, 「설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32-35쪽.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들의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문화와 민족적 금기 및 상징 체계 등을 교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sup>9)</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단군신화’ 연구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단군신화’ 연구의 의의를 밝히는 작업과 이를 통한 수업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재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수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sup>10)</sup> 최광석은 ‘단군신화’의 원전 수용 방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축약과 첨가가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여백을 메울 여지를 없앴으로써 사고를 막아버리거나, 원전의 서술을 변형하여 원전의 의경(意境)을 훼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임치균은 학년 급이 올라갈수록 원전에 가깝게 수록해야 하며, 원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전을 훼손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작품의 정조나 분위기를 살려서 현대어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2)</sup>

위의 두 연구는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이지만, 원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전달해 준다. 먼저, 교재에 문학 작품을 제시할 때, 원전에 대한 축약과 첨가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현대어로 바꿀 때는 작품의 정조나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전문학의 경우에 시대를 넘어 호소력 있는 설득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언어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 수용에 관련된 결론이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 외에도 새로운 문제 양상들이 도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전문학을 배우는 내국인 학습자들은 ‘시간’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고전문학 작품을 향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시간’ 외에도 국적과 문화적 배경, 언어의 장벽을 함께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9) 양지선, 「단군신화를 활용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 『고향논집』 제44집(2009), 11-31쪽.

10) 최광석, 「『홍길동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과 목표 학습 활동의 재구성」, 『어문학』 제 108집(한국어문학회, 2010), 133-162쪽; 임치균, 「고전소설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한국 고소설학회,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월인, 2005), 63-86쪽.

11) 최광석, 위의 글, 142-145쪽.

12) 임치균, 앞의 글, 63-86쪽.

이 글에서는 위의 연구 성과들에 힘입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향유하는 고전 작품 교육에서 텍스트 수용의 문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육에서 ‘단군신화’ 교육의 의의

신화는 인간의 원초적 감성을 다루며, 인간의 본질에 직접 다가가기 때문에 문학적 공감을 얻기 쉽다.<sup>13)</sup> 신화는 민족 고유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그 민족을 가장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sup>14)</sup> 또한 신화는 민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민족 집단의 경험을 통하여 그 집단의 사고체계, 즉 정신문화와 사회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신화를 통하여 한 민족의 역사적 풍토와 민족 문화의 성격 내지 이념의 방향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민족의 정신문화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sup>15)</sup>

신화 중에서도 건국신화는 전승의 주체가 민족이라는 문화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건국신화는 민족의 이상적인 국가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자국민의 의식 저변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적 지표가 된다.

한국의 건국신화는 언어와 문화, 역사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카터와 롱(R. Carter & M. N. Long)이 제시한 문학 교육의 세 가지 모형인 언어 모형, 문화

---

13) 이러한 신화의 특징은 세계적인 보편성과 함께 민족적 특수성을 가지며,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의 특성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멀리와 뒤프(A. Maley & A. Duff)는 외국어 교육에서 시 활용의 장점으로 세계성(universality), 평범하지 않음(non-triviality), 동기화(motivation), 전승(hands on), 애매성과 상호 작용(ambiguity and interaction), 반응과 개인적 관련(reaction and personal relevance), 기억하기 쉬움(memorability), 리듬(rhythm), 연행(performance), 적합성(compactness) 등을 들고 있다. A. Maley & A. Duff, *The inward Ear-Poetry in the language classroom*(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 방법 - 현대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1, 203, 한국국어교육학회, 515-516쪽에서 재인용.

14)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집문당, 2001), 3-8쪽.

15) 최남선, 『육당 최남선집 V』(을유문화사, 1973), 16쪽.

모형, 개인 성장 모형에 적용하기 매우 용이한 점이 있다. 건국 신화는 풍부한 언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문화 외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신화의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개인적 체험과 연관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sup>16)</sup>

건국신화는 교수의 대상에 따라서 교육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건국신화를 자국민에게 교수할 때는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 등을 교수할 수 있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해당 국가의 건국신화에서 자긍심과 긍지 등을 환기시키는 것은 자칫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sup>17)</sup>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의 건국신화를 교수하는 것은 한민족의 우월성이나 자긍심이 아닌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문제가 된다.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다문화 사회는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벗어나 여러 민족, 여러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상호 문화적(intercultural) 이해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소통, 이해, 협력해야 하는 사회이다. 상호 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은 심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낯선 것에 대한 열린 마음, 상대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sup>18)</sup> 목표 언어 화자와 다양한 맥락에서 적합하게 목표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이라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은 맥락으로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문화 능력을 전제한다. 의사소통 중심

16) 카터와 롱(R. Carter & M. N. Long)은 문학 교육 모형을 언어 모형·문화 모형·개인 성장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언어 모형은 언어 학습 자료로서 문학 텍스트를 가르치는 것으로 언어 형태와 문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 모형은 문학 텍스트의 외적인 맥락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이 다른 문화를 반영하는 전통사상, 정서, 예술적인 형식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 성장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문학 텍스트의 주제를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과 연관하여 개인의 성장을 돕는 데에 초점을 둔다. R. Carter & M. N. Long, *Teaching Literature*, Longman(1991), pp. 1-10.

17) 최운식은 그간의 단군신화에 대한 오랜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에 관한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한민족의 우월성과 유구한 역사, 제정일치 시대의 사제왕, 민족 지향의 이념(신국가 건설의 이상, 지상천국 건설의 현세주의 이념, 홍익인간 이념), 한국 문화의 원형 등이 해당된다. 최운식,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 『국어교육』 79호(한국어교육학회, 1992), 369-393쪽.

18) 유수연,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한국문화사, 2008), 103-105쪽.

교수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면, 문법적 지식 외에 다양한 상황에 맞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문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화자들이 생활하는 실제 세계 맥락을 바탕으로 한 체험적 문화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상호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면에서 상호 존중, 다양한 가치의 이해와 공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협상·협력 등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상호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한 여러 영역 중, 특히 지식 교육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이야기(내러티브)와 기억에 관하여 학습한다”<sup>19)</sup>는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상호 문화 능력을 신장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닉적 전통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제 나라의 신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화는 신화로서의 보편성과 함께 자국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sup>20)</sup> 또한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다국적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유용한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고, 상호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보편성을 토대로 하여 한국적 특수성에 접근할 때, 학습자들의 자문화와 한국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한국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화를 통한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공감 능력은 상호 문화 능력 신장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학습은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한국의 건국신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세계관, 이상적인 국가관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인의 심층적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 V. Georgi, “Citizenship and Diversity,” V. Georgi (ed.), *The Making of Citizens in Europe: New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dhe Bildung, 2008), p. 84; 히영식·정창화, 「다문화사회에서 간문화교육의 현장 착근 방향 - 유럽과 독일의 동향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2009) 47쪽에서 재인용.

20)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 아폴로, 신농씨 그리고 개구리 왕자까지』(대원사, 1991), 10-33쪽.

이러한 이해는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한국어 사용 현장에서 화용론적 인식을 복돋움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단군신화’는 짧은 분량 안에 매우 압축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분량상의 문제는 교재에 제시할 때 매우 유용한 점이다. 전문을 읽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온전한 텍스트로, 완성도 있는 텍스트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sup>21)</sup>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도 분량이 긴 설화나 고소설, 소설이나 수필 등의 현대문학 작품 등은 한국어 교재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생략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데 반하여, ‘단군신화’는 비교적 짧은 분량이므로 텍스트의 임의 삭제 없이 전문을 수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II. 한국어 교재에서의 ‘단군신화’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가 차지하는 위치는 명실상부하다. 교재는 교수-학습의 내용을 규정지어주며,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수 전략 및 학습 전략의 기초가 되며, 평가의 대상 및 자료 제공의 기능을 한다.<sup>22)</sup>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수업을 계획하게 해주며, 한국어 수업의 현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를 매개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습의 주된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평가의 목표 내용물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어 수업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sup>23)</sup> 따라서 한국어 교재를 살피는 일은 정량적으로 파악해 볼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한국어 교재는 그동안 양적으로나

---

21) 문학 작품의 선별 기준에서 작품의 길이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현숙은 실제 성과 재미를 중시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최근 성향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선별 기준으로 ‘장르, 현대성과 언어 및 내용적 난이도, 작품의 길이’ 등을 들었다. 지현숙, 「한국어 교육학에서 제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시학과 언어학』 제18호(시학과 언어학회, 2010), 25쪽.

22) 조향록,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 교육』 14-1(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249-278쪽.

23) 본고에서는 ‘교과서’라는 용어 대신, ‘교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것은 교과서라 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과서를 포함하여 정규 수업에 활용되지 않고 특별 수업에 활용되는 교재와 자습용 교재까지를 포함하여, 교과서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교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지난 몇 년간 매우 수준 높은 교재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또한 많은 교재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재 출판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항목별로 분석하여 교재 수록 시의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는 일반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이나 1급에서 6급 등으로 구별되는 한국어 능력 급수에 맞추어 한국어로 쉽게 풀어 쓰는 형태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렇게 급수에 맞추어 풀어 쓰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채 수록자 임의의 생략이나 첨가가 발생하여 원전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원전을 보게 되거나, 심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될 때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 문학 작품을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sup>24)</sup>

교재에 문학 작품을 실는 경우, 원전과 작가가 분명한 경우라면 이를 밝히는 것이 지당한 일일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개작을 시도할 경우, 원전과 원 작가를 밝혀주고 개작했음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현대문학 작품의 경우, 원전과 작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수록된 한국어 교재의 경우, 원전을 밝힌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단군신화’는 신화이면서도 구전보다는 책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서 원전을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개작하여서 원전과의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sup>25)</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원전과 수록 작품과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24) 이러한 문제의식은 필자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선행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단군신화’에 대한 내용을 묻는 필자에게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온 학습자들은 원전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외워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 교수에서 한국어 교재 집필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환기시켜준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본문의 내용은 학습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교재에서 원전에 나오는 내용과 원전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5) 구전으로 전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 채록한 경우 채록자, 장소, 화자 등을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구비문학 대계 등에 실린 경우, 책의 서지 사항을 통해 원전을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물며 원전이 분명히 존재하는 ‘단군신화’의 경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에 변개 양상은 견잡을 수 없게 된다.

고전문학 작품을 한국어 교재에 신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고민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리라 기대한다.

여기서는 대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문화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단군신화의 각 단락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하여 내용상의 차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sup>26)</sup> 먼저, 각 교재가 수록하고 있는 ‘단군신화’의 원전을 찾아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 요약, 수정하여 신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개 및 첨가의 양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락별로 제시하고, 각 교재를 단락별로 나누어 정리하여 첨가, 탈락, 변개의 양상을 정리해볼 것이다. 또한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정한 기준을 모색해볼 것이다.

## 1. ‘단군신화’의 내용

먼저, 각 한국어 교재들이 원전으로 삼고 있는 이본을 추정하기 위해서 ‘단군신화’ 이본들의 내용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단군신화’는 다양한 이본이 있다. 대표적 이본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이다. 이 이본들은 크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느냐와 ‘꿈이 여자가 되느냐’,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느냐’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대별하여 각 이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1과 같다.<sup>27)</sup>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왕운기』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환웅의 손녀가 약을 먹고 여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삼국유사』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서술이 없다. 이렇게 ‘꿈이 여자가 되다’라는 서술과 ‘홍익인간’의 서술이 있는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sup>28)</sup> ‘단군신화’는 ‘홍익인

26) 여기서는 한국어 교재로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와 문화 교육용 교재를 대상으로 삼았다. 교재의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에서 밝혔다.

27) 여기서는 다음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된 단락을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김정학, 「檀君神話와 토테미즘」, 이은봉 엮음, 『檀君神話研究』(온누리, 1986), 63-89쪽; 이정재, 「단군신화 이본연구 II - 천상계와 지상계의 신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연구』 3집(경희대 민속학연구소), 137-158쪽.

28)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12종(한문고전 포함)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가운데

표1- '단군신화'의 이본별 비교

비교 대목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1 환인 명칭	환인(桓因); 위제석야(謂帝釋也)	상제환인(上帝桓 因) - 제석(帝釋)	상제환인 (上帝桓因)	상제환인 (上帝桓因)
2 환웅 명칭	환웅천왕(桓雄天王)	단웅천왕 (檀雄天王)	단웅천왕 (檀雄天王)	환웅천왕 (桓雄天王)
3 지상에 오게 된 동기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했다.	삼위태백을 내려다보고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었다.	내려가 인간이 되고 싶었다.	내려가 인간이 되고 싶었다.
4 가지고 온 것	천부인(天符印) 3개	천부인(天符印) 3개	천삼인(天三印)	천삼인(天三印)
5 사람이 된 경위	웅녀가 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고자 해서 환웅이 인간으로 화하여 아이를 낳았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고 사람이 되게 하여 단수신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고 사람이 되게 하여 단수신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웅녀가 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고자 해서 환웅이 인간으로 화하여 아이를 낳았다.
6 단군 명칭	단군(檀君)	단군(檀君)	단군(檀君)	단군(檀君)

간'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국의 교육법 제1조의 내용의 근간이 된다.<sup>29)</sup>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는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기록이면서 신화로서의 짜임새를 지니고 있는 한편, 우리 민족의 기원과 역사·문화와 사상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sup>30)</sup>

이 연구에서 살피고 있는 8종의 한국어 교재들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곰이 여자가 되다리는 서술을 포함하고 있어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를 원전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를 단락별로 정리하여 한국어 교재에 실린 내용들과의 정밀 분석을 위한 토대로 삼도록 하겠다.

서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 7종인데, 이 7종의 교과서가 모두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를 인용하고 있다. 이종문,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의 원전에 관한 한 가지 의문」, 『한문교육연구』 제22집(2003), 349-351쪽.

29) 최운식, 앞의 논문, 387-389쪽.

30) 최운식, 앞의 논문, 371쪽.

## 2. ‘단군신화’의 단락별 구성

위의 교재들이 원전으로 삼고 있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A. 환인(제석)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B.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하였다.

C. 이에 환인은 천부인 3개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D. 환웅은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 마루턱 곧(곧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에 있는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神市)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이른다.

E. 환웅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F. 이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神雄), 즉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G. 이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H. 이에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삼칠일(21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조심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하였다.

I.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 밑에서 아기 배기를 축원하였다.

J. 환웅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

K. 단군왕검은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L. 또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더니 궁휼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31) 여기서는 다음의 해석을 따랐다. 일연(一然) 지음,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5), 51-53쪽.

한다.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M.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N.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 3. 각 교재의 ‘단군신화’ 수록 비교

여기서는 대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문화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단군신화의 각 단락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하여 내용상의 차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sup>32)</sup> 총체적 논의를 위하여 단락별 분석을 토대로 하여 첨가, 탈락, 변경으로 크게 구별하여 정리해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먼저 단락 비교를 통해 각 교재를 분석해 보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현대어라 하더라도 『삼국유사』 번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제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분석대상 교재의 각 단원을 정리해보면 표2와 같다.

표2-분석대상 교재의 ‘단군신화’ 수록 현황

기관명/저자	교재명	교재 분류	단원	제시 방식
경희대학교	『한국어 중급 2』	교과서	‘8. 옛날 이야기’	소설로 개작
고려대학교	『한국어 3』	교과서	‘18. 설마 곰이 사람이 됐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4B』	교과서	‘5. 서술하고, 추측하기’(읽고 말하기)	소설로 개작
서울대학교	『한국어 4』	교과서	‘2.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신화 요약
연세대학교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 4』	교과서	‘9. 옛 이야기, 옛 노래를 찾아서’	소설로 개작
연세대학교	『100시간 한국어 4』	교과서	‘15. 한국의 신화’	신화 요약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V』	워크북	‘3.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설명문
전미순	『문화 속 한국어』	문화 교재	‘25. 단군이야기’	연극대본

32) 여기서는 한국어 교재로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와 문화 교육용 교재를 대상으로 삼았다. 교재의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에서 밝혔다.

표2의 교재를 대상으로 첨가 부분, 탈락 부분, 변경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보고, 이의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sup>33)</sup>

### 1) 첨가 부분

표3-첨가 부분

번호	단락 번호 <sup>34)</sup>	첨가 내용
(1)	A	환웅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세계로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D	사람들은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에서 환웅에게 제사했다.
	H	곰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웅녀라 부르면서 어울리지 않았다.
(2)	K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일이다.”
(3)	C	환인은 환웅에게 거울과 칼과 방울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거울은 태양이고, 칼은 힘이고, 방울은 왕의 말이다.”
	K	고조선의 세 가지 법 소개
(5)	A	환인은 하늘나라가 좋은 줄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답답했다. 여러 번 타일러보았으나 환웅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B	환인은 환웅이 무질서한 인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땅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H	일주일도 안 돼 굴을 뚫어나왔고
(8)	A	환웅은 자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으로 내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A	저기 보이는 동쪽 나라의 사람들은 착하고 순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땅으로 내려가서 저 나라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C	너에게 천부인 3개(거울, 방울, 칼)와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부하 3천 명을 주도록 하겠다.
	H	동굴 생활이 갑갑하다는 곰과 호랑이의 대화

A·B·H 단락에서는 환웅이 지상에 내려오고 싶어 하는 이유와 환웅이 지상에 내려가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한 환인의 견해, 사람이 된 웅녀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다분히 소설적인 내용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첨가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딱딱한 신화의 원문을 풍부하

33) 이 글의 목적은 각 교재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각 교재는 (1)에서 (8)까지의 번호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번호와 각 기관의 교재는 관련이 없다.

34) 이 단락 번호는 위에서 제시한 『삼국유사』 기준 단락 번호이다.

게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문에 대한 지나친 첨가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원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첨가는 위의 각주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여백을 메울 여지를 없애버림으로써 사고를 막아버리거나, 원전의 의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소설적 첨가를 할 경우에는, 자료 말미에 원전을 밝혀 두고 현재 본문은 원전을 참고로 개작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주어야 학습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K 단락에서는 기원전 2333년을 5000년 전이라고 명시했다. 이 또한 학습자를 배려한 제시라 생각된다.

C 단락에서 첨가가 일어나는 부분은 천부인에 대한 해석이다. (3)과 (8)에서 천부인을 거울, 칼, 방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천부인은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에서는 천부인으로만 표기하고 있지, 이것이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다. 천부인에 대해서는 ‘단군신화’를 번역하여 신고 있는 책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결론짓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천부인에 대한 각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의 위력과 영험을 나타내는 물건<sup>35)</sup>
- 신의 위력과 영험한 표상이 되는 부인(符印). 이것을 가지고 인간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그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으나 보배로운 물건이었을 미루어 알 만하다<sup>36)</sup>
- 하늘이 임금 될 자에게 준다는 표적<sup>37)</sup>

다만 민속학적 입장에서 ‘단군신화’를 고찰한 논문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임기 중의 연구에 따르면 천부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38)</sup>

35) 김태곤·최운식·김진영, 『한국의 신화』(시인사, 1991), 32쪽.

36) 일연 지음,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을유문화사, 1995), 51쪽.

37) 일연 지음,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51쪽.

38) 임기중, 「천부인에 대하여」, 『강한영 교수 고회 기념 논문집』(1983), 383쪽; 장주근, 「단군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집문당, 1995), 22쪽에서 재인용.

첫째, 무구(巫具)인 신령(神鈴)·신모(神帽)·신검(神劍)이다. (최남선)  
 둘째, 신·대자연·인간의 삼계를 말한다. (장덕순)  
 셋째, 하늘·땅·저승을 지배하는 신기(神器)이다. (유동식)  
 넷째, tjurunga와 같은 성구(聖具)이다. (황패강)

이와 같은 연구에 힘입어 장주근은 이를 거울, 검, 방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sup>39)</sup>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학문적 입장에서 고증을 통한 견해이고,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물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문에서 천부인을 거울, 검, 방울이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원문 밖에서나 교사용 지침서 등에서 설명을 제시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교재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입장을 사실인 것처럼 못 박아 버리면,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 연구와 제 학문 분야의 긴밀한 연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제 분야는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한 상호적 연관 속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한 분야의 연구는 타 분야에서 연구된 성과를 참고하여 완결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얻어진 성과는 학습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 편찬 부분에서도 기왕에 연구된 국문학의 성과들을 참조한다면 그 완성도 면에서 더욱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교재에 반영할 부분과 원전대로 실을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아가게 되는 학습자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

## 2) 탈락 부분

탈락이 일어난 부분은 B. '홍익인간', C. '천부인', D. '태백산'·'무리 삼천'·'신단수', G. '100일 동안 금기를 지키라', H. '삼칠일 동안 금기를 지켰다' 등이다. B. 홍익인간의 경우 (1)과 (3)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의 의미로 바꾸어 썼으나, 이것이 '널리 인간(세계)을 이롭게 하라'라고

39) 장주근, 위의 책, 22쪽.

표4-탈락 부분

번호	단락 번호	탈락 내용
(1)	B	‘홍익인간’
	C	‘천부인’
	L·M·N 단락 생략	
(2)	C	‘천부인’
	D	‘태백산’·‘신단수’
	I·K·L·M·N 단락 전체	
(3)	B	‘홍익인간’
	G	‘100일 동안 금기를 지키라’
	H	‘삼칠일 동안 금기를 지켰다’
	I	‘기도했다’
	D·L·M 단락 생략	
(4)	B	‘홍익인간’
	I	‘기도했다’
	C·L·M·N 단락 생략	
(5)	D	‘무리 3,000’·‘신단수’
	L·M·N 단락	
(6)	M·N 단락 생략	
(7)	A	단락 전체
	B	단락 전체 - ‘홍익인간’ 생략
	C	단락 전체 - ‘천부인’ 생략
	D	단락 전체 - ‘무리 3,000’·‘신단수’ 생략
	E	단락 전체
	I·J·L·M·N 단락	
(8)	B	‘홍익인간’
	L·M·N 단락	

히는 홍익인간의 정확한 의미를 살리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홍익인간’이 한국의 교육법 제 1조로서 현재 한국 문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념이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의경을 살려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C. ‘천부인’, D. ‘태백산’·‘무리 삼천’·‘신단수’ 등은 단군신화를 교재의 분량에 맞춰 쓸 때, 많은 설명을 덧붙여야 하고, 생략해도 서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G. ‘100일 동안 금기를 지키라’와 H. ‘삼칠일 동안 금기를 지켰다’가 생략된 경우는 위에서와는 다른 원인으로 보인다. 100일 동안 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삼칠일(21일) 동안 금기를 지켜 사람이 되어 당착이

생기는 부분을 본문에서 생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생략은 서사 진행에도 영향을 준다. 기한의 명시 없이 ‘동굴에서 지내라’ 하는 금기는 실제로는 구체성이 없어서 명확한 의미가 드러나기 어렵다. 이렇게 100일과 삼칠일의 당착에 대해서는 III. 3. 3)항에서 더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또한 L·M·N 단락은 많은 교재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고조선 건국 이후에 도읍 이전,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 단군이 산신이 된 일 등 위의 단락 등과 서사적 연결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들이어서 많은 교재에서 생략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교재에서 원전의 상당 부분이 탈락되고 있는데, 이러한 탈락은 한국어 교재의 분량상의 문제,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 문제, 집필자의 의도 문제 등 다양한 양상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관마다 원전 수록의 기준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생기는 원전과의 거리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원전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탈락이 일어날 경우, 원전의 출처를 밝혀서 원전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단군신화’에 대한 선행지식이 이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3) 변개 부분

표5-변개 부분

번호	단락 번호	변개 내용
(2)	H	100일이 지났을 때 곰이 아주 예쁜 여자로 변함
(4)	H	곰은 100일 동안 참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7)	H	100일이 되어 곰이 아름다운 여자로 변함
(8)	H	100일이 되어 곰이 사람으로 변함

흥미로운 사실은 변개를 보이는 부분은 H 단락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개는 100일과 삼칠일에 대한 당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은 100일과 삼칠일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버렸

다. H 단락의 내용을 원문과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는 교재는 다음의 세 교재이다.

(1) H. 호랑이는 건디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꿈은 21일째 되는 날 자신이 처녀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5) H. 호랑이는 일주일도 안 돼 굴을 뛰쳐나왔고 삼칠일 아침 꿈은 인간이 되었다.

(6) H. 꿈은 이를 지켜 삼칠일 만에 여자가 되었으나, 호랑이는 건디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위의 세 교재는 100일 동안 지켜야 하는 금기가 21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 원문의 내용을 살려 기록하고 있다.

100일과 삼칠일의 당착에 대해서는 그간의 신화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신화에서 100일과 삼칠일은 상징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웅녀가 동굴에서 삼칠일을 지내는 것은 종교적 상징으로 빛 없는 동굴 속에 있다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죽어서 창조 이전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창조되어 재생한다는 종교적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을 표현한 이야기다. 이는 꿈에서 인간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재생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sup>40)</sup> 또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금기와 함께 그 의의가 포착되어야 한다. 격리의 제의에 임한 여성에게는 일정한 음식물 외에는 먹지 말라는 금기가 가해지는 것이 인류학적인 통례다. 이 사실을 떠나서 마늘과 쑥이 정력제니 보혈제니 아니면 고난의 상징이니 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sup>41)</sup> 또한 100일이나 삼칠일은 민간신앙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이것은 조선의 고유 민속을 표기한 것이다. 마늘, 쑥 등의 주술적 식물을 먹고 100일 또는 삼칠일을 금기하는 절리(絶離)의 제의는 웅녀의 성숙제의 원리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sup>42)</sup> 이렇게 꿈이 동굴에 들어가 100일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신화적인 통과제의로 보았을 때, 100일과 삼칠일은 신화적인 상징에서 차이가 없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40) 유동식, 「시조신화의 구조」, 이은봉 엮음, 『단군신화 연구』(은누리, 1986), 104쪽.

41)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 - 저 너머, 저 속, 저 심연으로』(일조각, 2005), 88쪽.

42) 장주근, 앞의 책, 35쪽.

또한 삼칠일은 ‘단군신화’ 전반에 나타나는 ‘3’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신화적인 신성성을 획득한다. 천부인 3개, 풍백·우사·운사의 3신, 무리 3,000, 360여 개의 인간사 주관, 삼칠일 금기 등은 ‘3’이라는 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sup>43)</sup> 이렇게 100일간 지켜야 하는 금기가 삼칠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원전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단군신화’는 신화이다. 신화는 신화만의 특성을 갖는다. 신화를 해석하는 원리는 다른 서사문학과 차별성을 갖는다. 꿈이 100일 동안 기하면 사람이 된다고 했지만, 삼칠일 만에 사람이 된 것은 일상에서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화적 상징이며, 신화적 문법이다. 이러한 서술은 신화를 신화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만 이해될 수 있으며, 이것을 신화의 상징으로 해석할 때야 비로소 신화의 뜻이 서며 의경이 서게 된다. 이러한 것을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변개해버리면, 원작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sup>44)</sup> 탈락이나 변이의 원인은 신화를 신화되게 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교재에 실을 때에도 원문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작품의 생생한 개성을 해치지 않는 태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IV. 원전의 교재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단군신화’ 수록의 기준 모색

위에서 논의한 II장의 내용인 한국어 교육에서의 ‘단군신화’ 교수의 의의와 III장의 교재 수록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단군신화’의 교재 수록의 기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43) 장덕순, 「단군신화의 문학적 시고」, 『한국설화문학연구』(도서출판 박이정, 1995), 133쪽.

44)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장르별 특징 및 이에 대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윤여탁의 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윤여탁은 한국어 교육에서 시적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다르게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것이 장애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나 시어의 특성을 교육적 장애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에 적합한 활동을 구상하는 것이 교수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자국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 지식이나 소양은 목표어의 문학이나 시를 배우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습자들은 자국 문학 학습에서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한국 문학 교육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스키마로 작용한다. 윤여탁, 앞의 글, 516쪽 참고.

(1) 믿을 만한 텍스트를 원전으로 삼았는가?

교재에 제시되는 문학 작품은 믿을 만한 텍스트를 원전으로 삼아야 함은 지당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의 교재들은 모두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2) 원전을 밝혔는가?

위의 교재들 중 원전을 밝히고 있는 것은 (6)의 교재뿐이다. 여기서는 ‘위의 글은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을 간략하게 옮겨 놓은 것이다’라고 하여 원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원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학습자들은 학문적 관심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어 교재에 현대문학 작품을 실는 경우에는 작가와 저서를 밝혀주는 데 반해서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 이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고전문학 작품도 작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밝혀주는 것이 문학 작품을 온당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

위의 탈락 부분에서 보듯이 생략되는 부분은 서사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탈락은 원문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원문의 원전을 밝혀주어서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의 성격을 달리 해서 개작한 경우에도 원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심화 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글의 장르적 성격을 명확히 했는가?

본문에 문학 작품을 제시할 때 글의 성격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원전을 성격을 따를 것인지, 다른 장르로 변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장르를 명확히 한다면 문학 학습에서 불필요한 혼돈을 막을 수 있다.

‘단군신화’의 경우 100일간의 금기가 삼칠일로 바뀌는 것은 소설에서라면 당착이지만, 신화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은유와 상징을 통하여 주제를 풀어나가는 신화 본연의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화의 장르적 특징은 자국에서 신화의 상징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습자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렇게 학습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적극 활용하여 문학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4) 원전에 교재 편찬자의 주관적 견해를 첨가하지 않았는가?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학습자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한국학 학습의 기초가 된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학습하게 될 한국 문학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경우, 신화인 원작을 소설로 개작하겠다는 설명 없이 신화로 알고 있는 것을 교재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서 개작을 하거나 주관적 견해를 첨가하여 변개시킨다면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5)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신지는 않았는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한 ‘천부인 3개’와 같은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입장을 사실인 것처럼 못 박아 버리면,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그간의 고전문학 연구를 참조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6) 원전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았는가?

‘단군신화’에서 곰이 100일 동안 기하면 사람이 된다고 했지만, 삼칠일 만에 사람이 된 것은 일상에서의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한 고증 없이 삼칠일을 100일로 바꾸어버리면, 원전의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 집필 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간 고전문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7) 교사용 지침을 제시했는가?

교재와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 교사용 지침서이다. 교재를 갖추는 것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어서 교사용 지침서를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기관 홈페이지에 교사용 카페나 자료실 등을 운영하면서 수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용 지침서가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교사용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용 카페나 자료실 등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사들은 상당한 교양과 한국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대해 균질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교과서 내용에 대해 관련 전공자들이 정보를 제공해놓는다면 지식에서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는 서로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단군신화’ 수록 현황을 분석하여 작품 수록 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법 제1조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군신화’는 한국의 건국신화로서 한국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세계관, 이상적인 국가관과 한국인의 심층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며, 학습자가 자문화와 목표문화인 한국 문화를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어, 상호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한 유용한 교수·학습 자료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원전으로 삼고 있는 ‘단군신화’가 『삼국유사』 소재임을 밝히고,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를 단락별로 나누어 교재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8종의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첨가, 탈락, 변경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삼칠일 동안 지킨 금기 내용을 100일로 바꾸는 변경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신화를 신화로 읽지 않고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적인 해석을 가한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장르적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재에 제시해야 하며, 원문에 제시할 수 없을 경우, 교사용 지도서나 기관 홈페이지 등의 교사용 카페나 자료실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실에서 제시되는 본문의 내용은 학습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교재에서 원문과 원문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한국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상호 문화 이해의 발판으

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유기체이며, 그것을 본래의 의도대로 살려 주는 것이 문학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미 자국에서 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학 교육의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진 사람들이다. 그러한 학습자들에게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전해주고, 그것이 의미하는 은유와 상징, 발달한 상상력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문학 교육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참 고 문 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중급』 2.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3.
- 고려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 - 저 너머, 저 속, 저 심연으로』. 일조각, 2005.
- 김정학, 「檀君神話와 토테미즘」. 이은봉 엮음, 『檀君神話研究』, 은누리, 1986, 63-89쪽.
- 김태곤·최운식·김진영,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91.
- 서강대학교 언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4B』.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006.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읽기 4』. 문진미디어, 2000.
-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학교육 연구」. 『국제 지역 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 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8, 147-170쪽.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국제 지역 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6, 101-125쪽.
- 양지선, 「단군신화를 활용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 『고향논집』 제44집, 2009, 11-31쪽.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00시간 한국어 5』. 연세대 출판부, 2007.
- \_\_\_\_\_,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 4』. 연세대 출판부, 1999.
- 유수연,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8.
-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 방법 - 현대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1, 2003, 한국 국어 교육학회, 512-533쪽.
-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1999, 257-271쪽.
- 이정재, 「단군신화 이본연구Ⅱ - 천상계와 지상계의 신을 중심으로 -」. 『한국 문화 연구』 3집,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135-158쪽.
- 이종문,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의 원전에 관한 한 가지 의문」. 『한문교육연구』 제22집, 2003, 347-371쪽.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V 워크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 일연 지음,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 1999.
- 일연(一然) 지음,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5.
- 임치균, 「고전소설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한국 고소설학회,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63-86쪽.
- 장덕순, 「단군신화의 문학적 시고」. 『한국설화문학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 장주근, 「단군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전미순, 『문화 속 한국어 1』. 랭귀지 플러스, 2008.
-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아폴로, 신농씨 그리고 개구리 왕자까지』. 대원사, 1991.
- 조항록,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249-278쪽.
- 지현숙, 「한국어교육학에서 체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시학과 언어학』 제18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0, 17-42쪽.
- 최광석, 「『홍길동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과 목표 학습 활동의 재구성」. 『어문학』 제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133-162쪽.
- 최남선, 『육당 최남선집 V』. 을유문화사, 1973.
- 최운식,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 『국어교육』 79호, 한국어교육학회, 1992, 369-393쪽.
- 허영식·정창화, 「다문화사회에서 간문화교육의 현장 착근 방향-유럽과 독일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 2009.
- 황인교, 「문학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2005, 287-300쪽.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기초 단계의 문학 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어문학회, 1998, 213-234쪽.
- Carter, R. & Long, M. N., *Teaching Literature*, Longman, 1991, pp. 1-10.
- Lazar, Gillian, "Why use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Teacher Training and Development, 1993, pp. 17-20.
- Collie, Joanne & Slater, Stephen,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3-6.
- Littlewood, William T., "Literature in the school foreign-language course," in C. J. Brumfit, R. A. Carter(Ed),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8-180.
- 김민희, 「설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단군신화’ 수록 현황을 분석하여 작품 수록 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법 제1조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군신화’는 한국의 건국신화로서 한국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세계관, 이상적인 국가관과 한국인의 심층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며, 학습자가 자문화와 목표문화인 한국 문화를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어, 상호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한 유용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원전으로 삼고 있는 ‘단군신화’가 『삼국유사』 소재임을 밝히고,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를 단락별로 나누어 교재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8종의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첨가, 탈락, 변경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삼철일 동안 지킨 금기 내용을 100일로 바꾸는 변경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신화를 신화로 읽지 않고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적인 해석을 가한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장르적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재에 제시해야 하며, 원문에 제시할 수 없을 경우, 교사용 지도서나 기관 홈페이지 등의 교사용 카페나 자료실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상호 문화 이해의 발판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유기체이며, 그것을 본래의 의도대로 살려주는 것이 문학 교육의 목표이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학 교육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전해주고, 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고일** 2010. 9. 20.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9.

**주제어(keyword)** 단군신화(Dan Gun Myth), 고전문학 작품 수록 시의 기준(a standard for contain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ext book), 상호 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삼국유사(Sam Gook Yu Sa), 첨가·탈락·변개 양상(additions·omissions·and modifications), 신화의 장르적 특성(Mythological traits)